

## 헤렐르야!

이 곳에서 봄을 맞으며, 한국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한국은 봄과 여름 사이에서 한창 푸르름을 더 해 가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봄이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추운 겨울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계절이라면, 이 곳은 비가 오는 늦가을과 겨울이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뜨거운 여름은 죽음을 의미 합니다. 5월이 지나가면서 이 곳 여름 특유의 건조하고도 뜨거운 날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서안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씩 나올 때면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전만 해도 푸르른 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누렇게 변해가는 광야를 마주 합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기를 지나며, 저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할 말이 무얼까 묵상 해 봅니다. 그러다 어제 현지 형제들과 함께 나눈 고난에 대한 말씀이 생각 났습니다. 옴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고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단련 시키기 위해서 허락 하신 것이 고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일이 생겼냐고 원망하지 말고, 더욱 큰 기쁨으로 연단받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직전에, 무슬림 형제들과 그리고 무슬림 배경에서 말씀으로 나온 형제 그리고 저희 4역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무슬림 친구들이 무슬림 중에 예수를 믿는 개종자가 나오면 죽여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그 무슬림 친구는 무슬림 배경에서 나온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대화 직 후에 나온 고난에 대한 이야기 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무거워 졌습니다. 이 곳 이땅의 생명들이 여름을 맞이하는 것 처럼, 저희도 저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아 우리 주님 얼굴을 뵈 때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도 도 힘을 내어 말씀으로 나아 가야겠습니다.

## 손모음 제목

1. 라말라 모자이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손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그렇듯이, 이 곳도 손모음이 필요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스라엘을 향한 분노 : 완전하게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 처럼, 8국도 2스라엘이 거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부터 거주, 통행 문제 등등이 제한 된 상황 입니다. 8국은 다른 나라에게 국가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8국 여권이 없을 뿐 더러, 2스라엘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주변 국가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2스라엘을 향한 8국인 사람들의 분노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안에 있다면 공의로 우신 1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1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친구들이 가진 분노를 뛰어 넘는 1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손모아 주세요
  2. 오랫동안 압제 속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듯, 이 곳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한'이 있습니다. 가슴에 깊이 담아 두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와의 '한'과는 다르게 이 곳 사람들은 표현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형제들 가운데 아주사소한 일가지고도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화해도 빠르지만, 1님께서 흠도 점

도 없이 이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 주시길, 생기는 다툼들을 포함한 모든 순간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이 형제 자매들을 빚어가 주시길 손모아 주세요.

3.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눈쁜 장님 처럼 살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돌이나, 나무에 기도를 하거나, 1년 앞에 무력하기만 한 귀신이지만 그 귀신이 두려워 제사를 지내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많은 부분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사슬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알라의 심기를 건드리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며 살아갑니다. 이슬람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복종하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압달라' 라는 이름은 이 곳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알라의 노예' 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테러집단들이 일어나서 연일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들 뒤에 있는 알라의 영에대한 영적인 두려움으로 육의 세계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때로는 폭력적인 것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 팔국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된 우리 민족처럼, 이들 가운데도 거짓을 끊어 낼 세대! 믿음의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님의 진정한 몸된 기회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손모아 주세요.

2. 저희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원 자매가 임신한지 17주가 되었습니다. 출산하기 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손모아 주세요. 저희 또한 1년께 위탁받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잘 준비 될 수 있도록 손모아 주세요!

